

두려움 없는 발언과 저항¹⁾

주디스 버틀러 지음

사토 요시유키(佐藤嘉幸) 일역

김상운 한역

우선 푸코의 ‘두려움 없는 발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치적 집회(어셈블리)를 이해하는 현대의 노력에 연결될 수 있느냐고 묻는 데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는 발언’을 ‘파르레시아²⁾’의 번역어로 해석하고 어셈블리를 공식적인 의회의 집회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가진, 비공식적이고 자연발생적이기도 한 집회의 형식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는 발언’을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런 발언을 집단적 발언으로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어떤 함의를 가질까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교에서의 1983년의 강의³⁾에서 푸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파르레시아를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파르레시아스트로 간주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혹은 그녀에게서 진실을 말하는 것에 리스크 혹은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⁴⁾ 어떤 의미에서 이 고찰은 덕의 실천으로서의 ‘비판’에 관한 푸코의 발언

* 「恐れなき発言と抵抗」, 『現代思想』, 2019년 3월 임시증간호 주디스 버틀러 특집, 87-99頁.

- 1) 이 글은 ‘토론’ 세미나 「주디스 버틀러 『어셈블리』 검토회」(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메이지대학교, 츠쿠바대학교 공동 개최, 2018년 12월 9일, 메이지대학교 스루가다이캠퍼스)를 위해 도입으로 준비된 것이다. 당일은 필자의 발언에 이어서 사토 요시유키, 히로세 준, 시미즈 토모코의 코멘트(본지의 본호에 게재)가 낭독되었다.
- 2) 희랍어 ‘파르레시아’는 푸코에게서는 대체로 ‘솔직하게 말하기’, ‘진실을 말하기’로 번역된다.
- 3) 이 강의록의 영어판 제목이 ‘두려움 없는 발언(Fearless speech)’이다.

을 연장하는 것이며, 그때 그가 염두에 두는 덕이란 ‘용기’입니다. 파르레시아로서 적당한 발언의 형식에 따라, 언급된 것에 대한 믿음과, 언급된 것의 진실 사이에는 일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아이러니한 발언이 아니라 화자가 언급되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 발언입니다. 푸코가 드⁸⁸는 예는 “철학자가 군주나 참주에게 말을 건네고 그 참주정치가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이 혼란을 야기하고 불쾌한 것이 되고 있음을 그에게 고한다. …”⁵⁾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이하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됩니다. 즉, 화자는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 화자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화자는 그 언어행위 그 자체에 의해 리스크를 떠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코가 지적하듯이, “참주가 짜증을 내면서 그 철학자를 벌하거나 추방하거나 죽일지도 모르기”⁶⁾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르레시아란 어떤 진실을 전할뿐 아니라, 화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믿음을 필요로 하며, 화자를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자의 신체야말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구류, 투옥, 죽음이란 화자의 신체를 구속 혹은 파괴하는 국가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화자가 이렇게 야마, 파르레시아스트로서 말하기 위해 그 혹은 그녀의 생명을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것은 불가결한 일은 아니지만 어떤 리스크는 떠맡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시사하는 것은 사람은 믿음을 갖고서 말할 뿐 아니라 말할 때에 무엇이 진실인가를 믿고 있다는 용기에 근거해 행위한다는 것입니다. 법 혹은 국가의 권위에 의한 처벌 행동을 포함하지 않는, 별종의 리스크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비록 그것이 자신의 친구, 평판을 잃거나 혹은 자신이 고립되는, 혹은 낙인이 찍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4) Michel Foucault, *Fearless Speech*, Edited by Josephi Pearson, Semiotext(e), 2001, pp.15-16. 원문의 him은 버틀러에 의해 him or her로 변경되었다.

5) Ibid, p.16.

6) Ibid, p.16.

지라도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하기의 결과로서 데미지(damage)를 입는 다양한 방식입니다. 푸코가 “그 극단적 형식”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 속에서 행해집니다.” 타자의 권력에 대해 복종하는 자만이 파르레시아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 예는 푸코가 강조하듯이, 참주는 “그가 어떤 리스크도 떠맡지 않기 때문에” 파르레시아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⁷⁾

만약 우리가 두려움 없는 발언은 현대의 집회 혹은 저항운동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냐는 물음을 끝까지 추구하고 싶다면, 저항 그 자체는 두려움 없는 발언을 모델로 하고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발언이란 무엇인가, 혹은 그것은 어떻게 기능하는가라고 물음으로써, 우리는 오늘날의 저항의 구조 혹은 의미에 대해 중요한 뭔가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제 오늘 발언에 내기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파르레시아는 개인의 언어행위인가, 혹은 그것은 사회운동을 통해서 복수의 목소리로 ‘언급되는’ 혹은 ‘행위화되는’ 무엇인가일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⁸⁹ 두려움 없는 발언의 현대의 사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아마 우선, “호소의 광경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 대해서, 혹은 누구를 앞에 두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또한 이 광경에서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두려움 없는 발언이라는 가정은, 말하기 위해서는, 혹은 말하는 동안에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두려움 없는 상태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내기에 걸려 있는 것은 발언에 있어서의 용기의 장소 혹은 의미이며,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우리가 상상하느냐 여떠나는 점입니다. 아마 우리는 말할 때 떨릴 수도 있고, 두려움을 극복

7) Ibid, p.16.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물음은 권력에 대한 물음을 열어줍니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혹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배의 힘들이란, 검열의 전망이란 무엇일까요? 실제로 체류허가서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혹은 쉽게 무효화될 수 있는 체류허가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말하는 것의 귀결은 구류 혹은 국외추방일 수 있습니다.

고백해두면, 저는 정치적 용기에 있어서 두려움 없는 말하기가 불가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하기 위해서는, 혹은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는 화자의 모델은 (a) 화자는 개인이며, 그 혹은 그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다. (b) 두려움은 두려움 없는 상태와 공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영웅주의적 견해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때때로 우리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고 타자들과 함께 말합니다. 또 권력의 한 형태 - ‘국가권력’이라고 말해둡니다 - 에 반대하여 말할 때에, 우리는 법적 귀결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면서 말하고, 혹은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귀결을 두려워하면서도 이야기하기로 결정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에 있어서의 갈등의 한 형식입니다. 우리는 그 귀결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말하는 것이며, 혹은 말하지 않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러한 귀결에 직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적 기질을 두려움을 복돋우는 제도 - 즉, 사람들의 요구의 처리를 늦추거나 혹은 거부하는, 혹은 그들을 무기한 구류⁹⁰에 복종시키는 법 혹은 법제도 - 에 결부시키는 광경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더 일반적으로 논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 표현은 항상 좁은 의미에서의 ‘발언’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복수의 형식이 발언, 몸짓, 운동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이며, 정치적 이의 신청이나 표현의 장소로서의 신체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 나는 정의상 두려움에 결부된 이민의 저항의 여러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찰하고, 또 개인주의의 틀 밖에서 용기와 발언을 재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복수적 발언 혹은 표현의 양태로서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몇 가지 사고방식을 제기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집회를 우리가 반대하는 집회로부터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지를 고찰하고 싶습니다.

제가 추상적인 방식으로 기술한 광경은 특히 그 체류 허가서가 일시적인 것이 이민자들에게, 그리고 난민의 불공정한 취급이 체계적일 것 같은 정치적 상황에 해당됩니다. 수용소의 난민이 무기한 구류 하에 놓이고 무권리라는 그 상황에 대해 반항하기로 결정할 때, 그들은 무엇을 기초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확립된, 혹은 보장된 발언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확립된 법적 틀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혹은 법제도의 틈바구니에서, 따라서 실정법 제도의 외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적으로는, 적시에 취급되어야 할 권리를, 또한 그들이 피난처 혹은 거주권을 구할 수 있는 나라로 이동할 권리를 얻을 권리를 보증하는 국제법 제도 하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난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법이 반복되어 정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1990년에 승인된 더블린 합의〔현재의 ‘더블린 규칙’〕는 이동의 권리와, 피난소의 요구를 적시의 방식으로 고려할 권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수정에 의해 참가국들이 안전(security)상의 우려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의 권리는 제한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무수한 난민이 무기한으로 구류되어 적법한 수속이나 법의 지배가 무기한으로 중단되어 동시에 행정권력, 법권력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많은 저항의 형식이 존재합니다. 구류된 이민자들은 아감벤적 의미에서의 ‘벌거벗은 삶’이 아닙니다.⁸⁾ 그들

은 정치체(polis)의 외부에 내던져지고 거기에 수용되고 모든 정치적 힘을 빼앗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우리가 정치적 힘을, 주권권력의 연장으로서 이해되는 국가권력에 의해 부여되고 취소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뿐입니다. 그러나 저항의 힘은 국가권력의 테두리 밖에서, 그것에⁹¹ 맞서서, 그리고 그 권위 부여 없이 형성될 것입니다. 만약 소위 ‘벌거벗은 삶’이 행위할 수 있고 실제로 행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벌거벗은 삶이 아니라 정치 활동의 한 형식이며, 그 종차성에 있어서 이해되어야 할 정치적 저항의 한 양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지배의 외부에 있습니다만 법권력 — 안전권력과 경찰권력을 포함합니다 — 에 의해 복종화되고 또 행위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구류되어 있는 타자들과, 혹은 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려는 자들과 협조하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권리 없는 상태로 환원된, 혹은 거의 환원된 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권리가 기존의 법률에 의해 미리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의 국가권력 혹은 국제적 권력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건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장된 권리란, 개인의 권리가 아닙니다(1951년의 국제 난민법[‘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의 조약’]이 난민을 한 명의 개인으로 취급하고, 그러므로 전쟁 혹은 박해에서 벗어나고 추방된 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권리가 주장되는 것은 종종 무기한의 구류에 반대하며, 국제적 권리 — 그것은 국민국가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포기되고 있습니다 — 을 재활성화하려는 활동가들(activists)과의 집단적 연대에 있어서입니다. 무기한 구류는 감옥산업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부문이며, (터키나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민자나 정치적 반체제파, 그리고 기존

8) 이하를 참조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90 『현대사상』, 2019년 3월 임시증간호 주디스 버틀러 특집

정부의 권력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설치된 것
입니다.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인종주의는 자유롭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안전을 원용함으로써 누구의 안전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물
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안전일까요? 아니면 현대 유럽에서의 백인특
권의 안전일까요? 혹은, 미합중국의 국경에 집결한 이민 캐러밴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합중국의 안전일까요?
아니면 악천후에 노출되고 국제법에 의한 보호를 결여한 채의 국적 없는 사
람들의 집단의 안전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는 하나의 물음은 한나 아렌트에서 유래한 “권리들을
가진 권리”라는 중요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들을 가질 권리는 실정법에도 자연법에도 기초를 가지지 않는 권리이
라고 하는 점에 찬성할 수 있을까요? 또 권리들을 가질 권리는 바로 그 권리⁹²
의 행사 그 자체에 있어서 형태와 의미를 갖는다고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민의 저항의 형식들(독일의 신문 『데일리 레지스탕스』⁹⁾ 영국의 그룹 “이
런 벽들은 무너져야 한다”,¹⁰⁾ 또한 “그리스연대 캠페인”¹¹⁾을 포함한 그리스
의 일련의 그룹)에 있어서 그런 권리가 행사될 때, 그것은 구류자들과, 그들
과 연대한 작동(활동)에 의해, 이른바 벽을 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
으로, 권리는 어떤 개인에 의해, 어떤 발언 속에서, 적시에 표출되는 것이 아
니라, 연속하여, 연대하여 일어나는 발언의 복수적 형식으로서, 경로를 넘어
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새로운 법을, 또 좋은 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무기한 구류를 특징짓는 법권력의 - 혹은 법적 폭력의 -
폭력적이고 타락적인 형식들에 투쟁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 다음을 참조 <https://dailyresistance.oplatz.net/>

10) 다음을 참조 <https://detention.org.uk/>

11) 다음을 참조 <http://greesolidarity.org/>

집회를 할 권리, 항의할 권리는 만약 항의의 귀결이 체포도 구류 혹은 국외 추방도 아닌 경우에만 두려움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두 개의 권리입니다. 만약 완전한 시민권을 갖지 않는 새로운 이민이 ‘급진적’ 혹은 ‘급진화된’ 것으로 간주되는 항의에 들어간다면 - 예를 들어, 만약 그들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대해, 혹은 가자지구에서의 시민의 살해에 대해 팔레스타인인의 인권을 옹호하려 한다면 - 그들은 즉각 반유대주의의 혐의를 받게 될까요? 물론 그 경우의 가정은 누구도 점령에, 팔레스타인에서의 무기한 구류에, 혹은 시민에게 중상을 입히는 것이나 시민을 살해하는 것에, 그것이 부정의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유대주의적 신념 혹은 관여로부터 반대한다고 가정될 경우, 그것이 함의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부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단, 문제는 더 큼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정부에 비판적이지 않은 어떠한 시위도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정지하는 안전적 프로토콜을 작동시킬 수 있는 곧바로 ‘폭동’이라고 명명하니깐요. 따라서 어떤 이민자이 그들에게 부과된 제한에, 그들의 상대적인 무권리 상태에, 혹은 무기한 구류 그 자체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 정부가 정치적 견해나 기타 자유로운 표현을, 왜곡적으로 혹은 무법으로도 폭동과, 혹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용기와 두려움, 두려움 없는 상대와 두려움 있는 상대라는 물음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권리를 박탈당한 이민자들이 그 박탈에 공공연히 반대할 때, 그들의 발언의 공적 표명이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그러므로 구류 혹은 국외 추방당할 만한 주요한 인물이 되는 것을 찾아낼 뿐이라는 상황을 고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권리 행사는 필연적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의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애초에 말하는 것의 귀결로서 더 큰 부정의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산출되는 것은 모종의 함정이며, 그 함정이란 이런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

며, 그러한 자유의 행사에 의해 언제든지 그러한 권리를 정지할 용의가 있는 국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발언은 항상 두려운 것이며, 바로 두려움의 조건이 국가의 위협에 의해 도출되므로, 표현의 자유의 행사는 또한 복수적인 그것의 문제이며, 연대와 저항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의 개념을 덕으로서, 그리고 발언의 개념을 개인의 표현으로서 구속하는 개인주의의 형식들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발언의 물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용기는 대개 ‘덕의 윤리’를 상기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를 가진 개인들을 생각합니다만, 협조행동 – 그것은 신체화된 판본의 협조행동이며, 아렌트적인 협조행동과는 구별됩니다만, 하지만 분명히 그녀의 중요한 개념에 의거한 것입니다 – 에서부터 출현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용기는 사회적 관계들의, 특히 연대의 관계들의 특징과 효과가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바로 사회적 관계들, 사람들 사이의 유대, 그들의 상호 관계성의 공간과 기회로부터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 정식화는 용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개인에게 속하는) 도덕적 덕으로부터 연대 행동의 기능과 그 축적되는 효과로 이동시킬 가능성을 주며,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파의 연대가 인종주의나 반유대주의, 이민 반대 혹은 부활하고 있는 백인지상주의의 해로운 꿈을 위해 집합한다는 조건하에서, 낭만주의적인 연대 개념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용기 있는 시위 혹은 집회(거기에는 차이가 있으며, 후자는 나타나고 있는 통치의 형식들에 의해 표식됩니다 – 독재체제 종결 후의, 또한 더 최근에는 페미니즘 운동 Ni Una Menos[“더는 한 명의 여성도 희생하지 마라”]¹²⁾에 의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거리 집

12) 14세의 소녀가 교제 상대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젠더에 기초한 폭력, “여성이라는 것에 의한 살해(femicide)”에 항의하여 2015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되어 남미와 스페인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된 페미니즘 운동을 가리킨다.

회에 유의하세요)에 대해 말하는 것의 한 가지 문제는 그러한 시위는 좌파든 우파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자주 엇갈린 목적으로 혹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기 있게 부를 수 있는 집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94 구하고 발생하고 사람들을 위협에 노출시키는 집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인종주의적, 혹은 반인종주의적 집회에 대해 말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집회란 무엇인가, 집회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낭만주의적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러한 것 중 일부는 증오를 번식시키고 인종주의를 조장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이상의 파괴를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우리는 집회를 그 목적에 의해, 또 그 평등주의적인 구조에 의해 구별해야 합니다. 파시즘적 행동은 통치의 파시즘적 형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며, 그것은 의심 없이 사람들이 - 지도자 아래에 - 집결하는 방식과, 그들이 집결하는 목적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용기에 찬, 급진민주주의적인 집회의 특징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집회는 수평성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평등, 포섭성, 반권위주의라는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비공식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집단의 이러한 특징은 그러한 집회가 초래하려고 하는 모종의 정치적 세계를 행위화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시위가 무엇을 초래하려고 하는지를 고려할 뿐 아니라, 그것이 무엇에 반항하려고 하는지, 혹은 무엇을 해체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때 어떻게 인종주의자의 이른바 용기 있는 발언을 반인종주의자로부터 구별하면 좋을까요? 백인지상주의자들은 그 생각에 따르면 용납할 수 없는 지배를 획득해 온 정치의 자유주의적 liberal 혹은 좌파적 형식들을 앞에 두고 스스로를 용기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의 책무는 그러한 용기 있다는 주장이 실은 겁쟁이라고 폭로하는 것, 혹은 용기를, 인종주의적 정치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에 맞서서 행동하는 용기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닐까요? 역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집회에, 그들이 자신의 입장을 주

장하기 위해 폭력에 호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로막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 아닐까요? 또한 경찰은 이러한 인종주의적 집회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런 행위는 특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그것이 반대하는 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이 힘들을 판단해야 하며, 우리의 용기는 그 판단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푸코는 용기 있는 발언을 규정했을 때, 국가, 혹은 정신의학의 제도들은 그것을 앞에 두고 용기가 필요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그러한 말들을 재고하는 것 - 혹은 경우에 있어서는 포기하는 것 - 이며, 그것을 좌파정치를 위해 기능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좌파 정치란, 반권위주의적, 반파시즘적, 반인종주의적인 정치로, 젠더나 섹슈얼리티에 의거한 억압이나 지배의 형식들에 반대하고 끊임없이 증대하는 사람들이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불안정성의 조건들, 특히 노동의 조건 혹은 권리를 박탈하는 불안정성precarity의 조건들, 또한 유럽과 중앙 아메리카의 국경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점점 보통의 것이 된 수용소 안에서 무기한 구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불안정성의 조건들에 반대하는 정치를 가리킵니다 - 그런 수용소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이제, 150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중국 서부의 위구르 지구의 수용소, 혹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수용소에 대해서 고찰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있어서, 말할 권리와 집회를 할 권리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모두 표현의 자유입니다. 또, 집단들이 주장을 할 때에, 집회는 그것이 행하는 주장 그자체의 일부입니다. 집회를 할 권리는 권리 개념을 아직도 특징짓고 있는 개인주의적 경향을 재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집회는 권리로서 개인에게도 집단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그것이 구속하는 동시에 활기를 띠는 사람들을 변용시키는 관계로부터 나타납니다. 어떤 집단이 형성될지도 모르지만 행동이나, 권리의 주장은 기성 집단에 의해 기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은 집단 형성의 일부

입니다. 집단은 주장을 행하는 도중에 형성되며, 일단 주장이 행해지면 해체 혹은 재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집회를 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자신만의 집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집회가 사회적 혹은 정치적 질서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 집회가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적 혹은 정치적 질서를 예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회는 파시즘적일 수도, 반파시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진민주주의적 잠재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집회는 숙의의 양태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등, 폭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유의 공적 행사의 옹호에 의거한 통치 양태를 시작하고 예시하고 혹은 예방하기도 합니다. 집회는 우선, 그것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선언에도 앞서 나타남으로써, 출현의 공적 공간을 옅으로써, 그 주장을 실행합니다. 혹은 그 선언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이 언표 행위의 공적이고 공간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입니다. 집회는 출현하지 않은 네트워크에 의거하며, 출현의 영역을 형성⁹⁶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집회를 합니

다만 집회를 하는 행위는 거기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집회의 테크놀로지에 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집회를 한다는 행위는, 신체적으로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이며, 그리고 그 비가시의 네트워크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집회의 형식입니다.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가진 집회를, 그것이 없는 집회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집회의 표현적인 힘을 통해서 정치적 요구를 분절해온 사람들의 일부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에서 Ni Una Menos 운동의 일부로서 형성된 집회를 고찰해봅시다. 여성들과 그 협력자가 모여 폭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서로를 의지하여 논의하며, 성폭력에 대한 공적인 반대를 낳았으며, 미디어의 전달에 의해 세력을 늘리며, 새로운 집단이, 새로운 보도가, 새로운 유인이 형성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2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더 최근에는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 약 100만 명의 여성이 복수의 의회를 급진민주주의에서의

실험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1983년에 형성된 독재 정권 시대에 민주주의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연발생적으로 집합한 집단들을 상기시키며 재 행위화하는 것입니다. 혹은 2009년의 바르셀로나에서의 인민집회, 즉 청구 액을 증대시키고 주택을 압류하는 은행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Plataforma de Afectados por la Hipoteca(‘주택 담보 대출 피해자 플랫폼’)¹³⁾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거리로 쫓겨났지만, 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거리가 그들의 집이 되었던 것이고 경찰이 사라졌을 때, 거리가 그들의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리에 머무르는 것 외에 어떠한 선택지도 존재하지 않을 때, 악천후에, 타자로부터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삶의 물질적 조건들을 재생산하는 수단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태에 놓여진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인 상태를 시위에 의해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난민들의 시위나 야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운동의 권리, 피난처의 권리, 귀속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동시에 권리 없는 존재라는 상태를 시위에 의해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 없는 상태를 시위로 표명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의 유효성은 본질적으로 그 똑같은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네트워크를, 또 저항의 사건을 그 시간과 장소의 외부에서 확립하고 이동시키는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에 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7

집단들이 여러 가지 집회로서 형태를 취할 때, 그것들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 사이의 유대가 반드시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스스로가 무엇에 반대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고 있으며, 함께 행위하는 정치적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행동을 위해 서로에게 의

13) 2008년의 리먼 쇼크에서 유래하는 금융위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저당권을 행사한 은행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빼앗겼는데, 그런 사람들의 주거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2009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된 사회운동을 가리킨다.

존하고 있습니다. 각자는 동시에 지탱되고 있으며, 지탱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것들이 필요로 하는 상호의존을 잠정적으로 분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언명할 때, 우리는 또한 사회적인 것을 특징짓는 기본 원리들을, 생존 가능한 삶의 민주주의적 조건들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이러한 필요를 분절하고 언명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특히 주민들을 결핍상태로 유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그들 자신의 행동의 귀결이며, 그들이 그럴 만한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해로운 도덕적 개인주의를 행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삶의 힘이 자기 자신을 무매개적인 방식으로 알게 하듯이, 정치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신체들의 ‘직접성=무매개성’에 의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푸코가 화자의 신체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드러낼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를 들어 집회를 할 권리가, 제가 그 권리는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나 자신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때에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할 권리는 집회가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생길 경우에만 발생하며 또한 의미를 이룹니다. 그것은 권리를 행위화하고 권리가 무엇을 수반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신체들의 적시이자 복수적인 출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주장은 이 우선적이고 집단적 힘에 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집회 혹은 시위를 위해 나타날 때, 법에 의해 성문화 혹은 승인되지 않은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의 권리도 어떤 집단의 권리도 아니고(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주체의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시하고, 행위화하는 사회관계로부터 출현하는 권리이며, 집회를 하는 집단적 힘으로부터, 즉 사람들 사이의 관계, 차이화하는 동시에 연결하는 관계, 항상 단절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유지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한 관계로부터 출현하는 권리입니다.

그때 어떤 집단적 힘이 난민의 반란 혹은 불안정한precarious 자들의 집합에 의해 증명되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용기 있다고 98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옳을까요? 말 속에서, 혹은 행동을 통해 그들은 신체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하는 '우리'는 집합할 수 있도록 항상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한 삶을 생존 가능케 하는 조건들의 파괴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기 위해 거리에 나타나는 신체들은 자신들은 삶의 존속과 생존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신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존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속 그 자체의 가능성을 파괴하고 생존 가능한 삶의 미래의 지평을 닫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순환적이지만 그것은 그 불안정성과 존속이 문제 그 자체인 신체를 시위에 의해 표명하는 것을 통해 불안정성을 시위에 의해 표명하는 자입니다. 신체는 행위화하고 주장이 됩니다. 저는 그 주장에 제안의 형식을 줄 수 있지만 저의 묘사는 지연된 것이며, 행해진 요구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 이 신체들은 정치 문제의 중심에 신체들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위협에 노출된 신체이다. 이것들은 존속하며 저항하는 신체이다"라고

이러한 집회는 그것이 스스로의 소멸에 반대하는 그 순간에, 사회적인 것의 임시 하부구조적인 조건들을 구성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삶을 지속적 방식으로 이상적으로 통제해야 할 이상을 일시적인 방식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집회는, 생존 가능한 삶의 가능성을, 가동성을, 표현을, 주거=피난처를, 귀속을, 법적 지위를, 일을, 자유를 빼앗긴 존재 조건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그 생존 가능성의 조건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수준에서 활발하게 재생산되는 살아있는 신체에 의거하는 힘입니다. 불안정성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형식들은, 불안정성을 경제적 평등으로 직접적으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그런 불안정성

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형식들은 그러한 전환, 그러한 혁명, 그러한 가능성을
예시하는 것이며, 그것들은 동원을 위한 호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유기
의 제도화된 형식에 대한 봉기는 정치적 요구에 신체화된 형태를 부여합니
다. 그러한 봉기는 변함없이 이중적 의미에서, 신체가 항상 문제= 물질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체들의 연계의 시위에 의한 표명은 파괴의 위협과 현
재와 관련된, 신체의 매개된 표명이며, 출현하지 않으나 출현의 공간을 떠받
치고, 전달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지탱에 의해 비로소 물질화할 수 있는 그것
입니다. 집회는 불안정성의 조건들에, 폭력에 대한 노출에, 유기에 반대하는
99 동시에 촉발된 신체들, 그 존속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신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에 있어서, 권리의 주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존재하는
것이며, 상호의존이나 평등이라는 소멸되고 있는 이상의 재생이 존재하는
것이며, 집회가 그 자체에 있어서 완전하게는 물질화할 수 없는 미래의 가능
성을 예시하는 일시적인 집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연대의
적시의 형태이며, 정치적 주장을 펴는 신체적 유인이며, 집합적 존속과 근본
적 평등이라는 세계가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도표적으로 상기시키
는 것이며, 또한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비전 또 그러한 망각에 맞설 책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비전입니다.